하늘에 매달린 삶엔 지진 없다

(아모스 1:1~15)

1. 유다 왕 웃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2.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4.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5.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벧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에 매달린 삶엔 지진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에 매달린 삶엔 지진 없다'

옛날 인도 사람들은 여덟 마리의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마리가 힘이 빠지면 땅이 기울어지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진이 많은 일본 사람들은 땅속에 성질이 사나운 거대한 메기가 산다고 믿었습니다. 신이 메기를 돌로 눌러 놓고 있는데 신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그 틈을 타서 메기가 땅 속에서 날뛸 때에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경주와 포항지역이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지진은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에도 내진설계가 법적으로 필수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를 내진이라고 부릅니다만 여기에도 단계가 있는데 내진설계와 제진설계와 면진설계가 있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책으로써 지진의 영향을 받되 건물의 뼈대와 골격을 튼튼히 함으로써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설계입니다. 진동을 제어한다는 의미의 제진설계는 이름대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건축물의 흔들림을 30~50%정도 감소시키는 설계를 합니다. 내진설계가 진동에 버티기를 목적으로 했다면 제진설계는 진동을 피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설계입니다.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관성에 의해 따라 흔들리게 되는데 이 관성을 상쇄시키는 제진설계를 한 건물은 일반적인 내진설계의 건물보다도 지진에 더 강합니다. 내진설계가 적에게서 방어를 위한 성을 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제진설계는 역공을 해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면진설계는 애초에 건물의 기초를 땅에 두지 않습니다.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울 공간을 확보한 후에 그 위에 거대한 고무 베어링이나 블록으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립니다. 결국 건물은 지표면에 세워져있기는 하되 고무를 통해 땅과 분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설계를 한 건물은 내진설계나 제진설계를 한 건물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견뎌냅니다. 그렇기에 이를 진동에서 면제받는 의미의 면진설계라고 합니다.

한편 지질학적 지진이 아니라도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문제의 지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내진 제진 면진을 뛰어넘어 애초에 인생에 지진이 없는 무진설계가 가능합니다. 삶이라는 건축물을 하늘에 매달면 됩니다. 땅은 지진이 일어나고 무너질지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에 매달리는 무진설계가 이루어진 삶은 어떤 문제의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민이라면 무진설계로 삶을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지진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지진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는 현상을 마음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서움이 생기는 이유는 마음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육체의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크기로 지음 받았기에 항상 채우고자 하는 흡입력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를 통해 접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서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무관하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단 1분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진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채움 거리가 땅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땅을 흔드는 지진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마음의 채움 거리가 이 땅위에 전혀 없다면 땅이 흔들리든 말든 무서울 리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서 지진에 비유될만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30년간 사업에 매진해 온 사장님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장님의 삶에는 심각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철썩 같이 믿었던 연인이나 배우자가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삶에서 일어난 심각한 지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범생이라고 믿었던 자녀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혹은 임신 사실을 감추고 학교를 다니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부모로써 삶에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견딜 수 없는 지진이 찾아온 것입

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이것들에 두지 않는다면 지진으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삶에서 느끼는 지진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삶에 마음을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세상이 채울 수 있으리라 철썩 같이 믿었지만 요동이 일어나니 지진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음이 더는 육체가 있는 세상의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만 마음을 보내게 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삶에 견딜 수 없는 지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지진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한 대로 마음이 하늘에 앉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마음 채움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채움의 대상이 땅이 아닌 하늘에 존재한다면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삶에는 지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다면 삶에서 지진이 일어나든 잔잔한 호수와 같든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고 아우성을 치든 괜찮다고 안심을 하든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일 뿐입니다. 마음에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삶을 흔드는 지진과 같은 사건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흔들림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사건도 지진일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땅의 대상을 통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고 그로인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리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상들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환경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지진을 느끼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모스 선지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 왕국 유다에서는 웃시야 왕의 시대이며,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본문에서 드고아라는 지명이 언급되는데 어제 설교에서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에게 승리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지점에 있는 경사진 초원지대입니다. 아모스는 바로 남 왕국 유다의 드고아 출신이었지만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 2세의 시기는 북 왕국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 왕국 유다 또한 웃시야 왕 때에 북 왕국 이스라엘만큼은 아니더라도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시기였습니다. 분열된 상태였지만 남북 왕국이 모두 번영하던 중간

시기였던 것입니다. 본래 목자였던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여 어떤 선지자보다도 강렬한 심판의 예언을 전파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회복에 대한 언급 또한 나타나기는 합니다만 아모스 선지자처럼 강렬하고 일관되게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는 달리 없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시기를 드러내며 '지진 전 이년에'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약 100년 뒤에 활동하게 되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언급이 될 만큼 거대한 지진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또 2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고 하였습니다. 목자 출신이었던 아모스에게는 양을 기르던 드고아의 푸른 들판과 비옥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갈멜 산은 삶의 근간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마음에 풍요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이 생산되는 기반이 사라지게 하시리라는 예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은 북 왕국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변의 여섯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예언이 시작됩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를 비롯한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에서는 그 순서가 특이합니다. 선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고 난 후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문에서는 이와 반대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예언되고 선민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함축된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시작하여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으로 시작되는 심판의 예언은 남 왕국 유다를 거쳐 북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민들에 앞서 주변 이방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먼저 언급된 이유는, 바로 선민의 나라와 이방 나라가 아무런 차별점이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선민은 이방인과 차별화 되도록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지 않으면 선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하는 부서에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3명이고 나머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때에 3명의 기독교인은 무조건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다면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자처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선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실패는 무엇일까요? 사업의 실패, 건강을 잃는 것, 자녀가 형통치 못한 것 등은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선민이고 교인을 자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실패입니다. 특별히 가치관에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다면 최악의 실패입니다. 이처럼 선민은 그 이름대로 선택된 자로써 세상과 달라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말씀이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인해 불을 보내시겠다는 말씀 또한 반복됩니다. 여기서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세 가지 네 가지 부분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에 충분한 양의 죄가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섯 나라가 공통적으로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민의 나라에 대한 해악입니다. 선민의 나라를 침범하거나 선민을 노예로 잡아 팔거나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방 여섯 나라는 언어와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달랐기에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섯 나라가 공통적으로 선민의 나라에 대해서만은 적대적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절대로 화해나 동질화 될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써 선민과 화해하고 동질화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민으로 상징된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과 화해하고 동질화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어디까지나 차별화 된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 여섯 나라의 심판에 이어서 선민의 심판이 언급되는 것은 선민들이 결국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모스 선지자의 관점에서 선민과 이방인은 무엇이 달라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삶의 환경에서 지진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마음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가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선민이라면 삶은 어떻든 마음에서는 지진을 느끼지 않아야만 합니다.
한편 마음에서 지진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선민의 삶이 유지되었다면 삶을 흔드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환경적 지진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땅에서 찾고 있었고, 삶을 마치 땅에 쌓아올리는 건축물과 같이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흔드는 지진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선민은 삶이라는 건축물을 하늘에 매다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매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삶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곧 마음의 채움 거리를 땅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와 남 왕국 유다에서는 웃시야 왕 때에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땅을 쌓아올리는 삶에 취해있었습니다. 내진설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을 올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는 것보다도 진동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진동은 심한 경우에도 표면이 1.2m 안팎에서 흔들리는 수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작 30초간 지면이 물결치게 되면 땅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초토화가 됩니다. 선민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흔들

리면 무너질 삶을 쌓으며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한지 2년 뒤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지진이었습니다. 선민이라면 마음을 하늘에 보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위해 일찍이 성전을 허락해주셨습니다. 다시 본문 2절을 살펴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언급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돈이라는 이름을 품으면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품으면 실제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지속하는 자들이 선민이어야 했습니다.
선민이 이방인과 다른 점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선민다움의 은혜와 특혜는 바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민들 스스로가 이 성전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민에게는 마음 채움거리로 스스로를 제공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을 추구하는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를 거부했고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선민을 가려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정된 상황이 구비되었던 때에 지진을 일으키심으로써 그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지진도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북 왕국 이스라엘은 BC.722년에 앗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임이 예언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들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 있는 대상들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은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대상임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을 제외한 이 땅의 기쁨과 만족거리에 대해서는 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머물게 되면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이 내려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늘에 매달린 무진설계의 삶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쌓아올린 삶은 지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사는 동안 내내 편안했더라도 죽음이라는 지진 앞에서 마음은 깡그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죽은 이후에야 지옥에 떨어져서 자신이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만 무진설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진설계를 통해 하늘에 매달린 마음은 이 땅에서 지진과 같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사업, 직장생활 등을 비롯한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도 지진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무진설계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지 않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허락받은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이끌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은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차이를 보일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방인보다 더 괘씸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고 이상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잊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 삶에 대해 완전한 무진설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화 된 선민으로써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동질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